



# 정혜엘리사벳

ST. JEONG-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

<http://www.sackcc.net>

주임신부: 김한모. 바오로 916-207-4806  
 본당부제: 김병준. 바오로 217-352-2487  
 본당부제: 김상돈. 도밍고 916-580-8519  
 사목회장: 고정하. 야고보 916-212-3747  
 연례회장: 고원석. 바오로 916-813-4440

ST. JEONG-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. Sacramento, CA 95826  
 사무실: 916-368-9204 Fax: 916-368-8304

오늘의 말씀 제1독서 신명기 8:2-3, 14-17 제2독서 코린토1서 10:16-17 복음 요한 6:51-58

## ◎말씀 < 살기 위해 먹는 밥 >

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. 우리에게 천상식탁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며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.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지요. 그 물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하늘에 의지해야 되는 것임에도 그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가뭄이 들면 그제야 하늘을 바라보고 기우제라도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늘에 의탁할 때가 많습니다. 우리의 영혼이 아프지 않고 하느님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. 늘상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미사성제는 때때로 귀찮고 아무 생각 없는 일상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일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식탁의 초대가 귀찮아서 응답하지 않거나 또 잊고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 육신이 마르고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. 밥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. 때가 되니 먹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맛있는지 맛없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니 먹는 밥일 때가 많습니다. 하느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미를 두던 두지 않던 끊임없이 당신의 몸과 피로

상을 차려내실 것입니다. 그 천상의 밥상에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드는 사람이더라도 당신의 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. 그래서라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. 그래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. 그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밥이, 그리고 간혹 맛있었던 밥, 그 모두가 오늘을 살게 하고 천상의 내일을 준비시켜주는 밥이라는 사실을 가끔은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. 더욱 분명한 것은 밥을 못 먹게 되면 죽는 것처럼 하느님의 몸, 그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. 아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음식이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모유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음식은 우리를 내신 하느님의 몸에서 나온 음식인 성체요, 성혈입니다. 그 완전한 천상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게 하는 것이 주일미사를 의무로 만든 교회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주일미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당신의 자녀라면 찾아 먹어야 되는 우리의 권리로 주장되면 더 좋겠습니다. 하늘 시민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에게 허락하시는 천상의 밥상, 거룩한 미사성체에 늘 함께 하는 우리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.

일 자	전 레 력	미사시간	우리들 정성(지난주)	
6월20일(화)	연중 제11주간 화요일	오후7시30분	교 무 금 주일헌금	\$ 1,880.00 \$ 1,096.00
6월21일(수)	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	오전7시30분	성소후원 사회복지	\$ 180.00 \$ 60.00
6월22일(목)	연중 제11주간 목요일	오후7시30분	성 물 방 주일학교	\$ 34.00 \$ 2,494.00
6월23일(금)	예수 성심 대축일	오후7시30분	원캠페인 기타수입	\$ 0.00 \$ 0.00
6월24일(토)	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	오후7시30분	합 계	\$ 5,744.00
6월25일(일)	연중 제12주일	오전 9시 오전 11시	미사참례자	학생: 18명 성인: 183명

교무금봉헌자 이윤상(5-6월) 김용문(1-6월) 권영일(4-5월) 김채홍. 김광희. 지복원. 김숙자. 최재진. 이원건. 장신자(6월)

# ■신앙생활(가정의 쇄신;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)

##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

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1247년 리에즈에서 몽 꼬르니옹(Mont-Cornillon)의 줄리앙이라는 한 수녀의 열성에 의해 처음 드러졌다. 1208년 환시 중에 주님께서 제대의 성체성사를 공경하는 연중 축일이 빠져 있음을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녀는 말하였다. 얼마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리에즈의 주교와 특히 후에 교황 우르바노 4세가 된(1261) 자코 뽀팔레옹 대부제가 이 계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. 오르비에또(Orvieto) 근처 볼세나(Bolsena)에서 일어난 성체성사 기적에 감명 받은 우르바노 4세는 1264년, 오르비에또에서 교서 "Transiturus"를 반포하는 가운데 새 대축일을 제정하였으며, 이 대축일은 성령강림절 팔부 다음 목요일에 성체성사를 기념하여 지내게 되었다. 줄리앙은 몽 꼬르니옹의 한 젊은 수사에게 새 축일 시간전례 기도문을 만들 것을 부탁하였었다. 하지만 우리 시대까지 사용되고 있는 교황의 교서에 함께 붙어 있는 시간전례 기도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. 근대의 연구는, 이 축일을 위한 미사와 시간전례 기도문은 성 토마스가 만든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경향이다. 교황이 새 축일을 서방 교회 전체가 지키도록 자신의 권위로 명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. 오랫동안 이 축일은 "새 대축일"이라 불렀다. 또한 성체성사 축일, 하느님 축일, 지극히 고귀한 성사 축일, 그리스도의 몸과 피 대축일로도 불렀다.

우르바노 4세가 새 축일을 세운지 두 달 후에 죽은 까닭에 그의 교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. 클레멘스 5세(1311-1312)와 요한22세(1317)가 이 교서를 새로 확인한 다음에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 전 교회에 받아들여졌다. 이 축일을 진작시킨 세 교황 가운데 성체 행렬에 대해 언급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. 여러 지역에서는 빠스카 아침 지성소의 그리스도의 "무덤"에 빨마가지를 든 채 성체를 모시고 행진하거나 또는 성대하게 성체를 옮겼다. 본래 의미의 성체 행렬(성체 거동)은 13세기 말 산발적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풍습은 14, 15세기에 퍼져나갔다. 로마교회는 15세기에 이를 받아들였다.

†. 함께 기도해 주세요.

◎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.  
윤안나/황애다/원정은. 카타리나/성낙순. 안나 백정심. 막달레나/전기례. 베레나/김나미. 로사 김옥륜. 세실리아/추소연. 세실리아/엄안드레아 김숙자. 수산나/서향자. 글라라/김초지. 마리아 김미숙. 모니카/황순이. 마리아/최이주. 베아따 신용경. 그레고리오/엄모니카/이규청. 제노비아 배미성. 오틸리아/박모란. 글라라/김광진. 요한 김영자

◎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.

◎오늘의 미사지향(미사신청; 박율리아. 916-990-6531/박프란치스코. 909-573-5322)◎

구분	지향	봉헌자	구분	지향	봉헌자
연	전승만 요셉의 영혼을 위하여	전비아. 전앤드류	생	허용희. 루시아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	박재례. 마리아
연	양재혁. 아브라함의 영혼을 위하여	김계숙. 효주이네스	생	서중부 여성 제11차 꾸르실료 참가자 및 봉사자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	진엘리사
연			생		

간  
장  
종  
지

◎믿음은◎

믿음은 긴 기다림이라고 하대요.  
그 기다림은 귀한 시간이라고 하대요.  
당신이 나를 기다려 주리라는 기대,  
그 기대는 우리가 한 몸이라 말해 주대요.

(마종기. 노렌조 시인. 의사/최창원 니콜라오 화가)



(광고)

“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”

주보제작; 박봉준. 프란치스코 살레시오(909- 573-5322) E-Mail:bongjun5322@gmail.com

**클라라 가정양로원  
(Clara Care Home)**

4665 Freeway Cir.  
Sacramento, CA 95841

김재열 (스테파노)  
김옥기 (클라라)

☎ 530-771-7715  
204-8878

**서은미 부동산**

Keller Williams Realty  
8525 Madison Ave. #122  
Fair Oaks, CA 95628

서은미(안나)

☎ (916) 860-3873

**Hair Story Salon**

9723 Folsom Blvd. #B  
Sacramento, CA 95827

헤어디자이너  
정린(클라라)

☎ (916) 342-7072

**1.2.3 Auto  
Body/정비**

11357 Pyrites Way  
Suite B1, Rancho  
Cordova CA 95670

이호영(호영베드로)  
☎ (916) 366-0123

**JIMMY KIM  
GOLF SCHOOL**

~Sunrise Golf Course~  
6412 Sunrise Blvd.  
Citrus Heights CA 95610

Jimmy Kim(안토니오)  
☎ (916) 605-6974

**최병엽공인회계사**

Byungyeub Choi CPA &  
Associates Inc.

9521 Folsom Blvd.suit P  
Sacramento, CA 95827  
(Butterfield Plaza #P)

최병엽(바오로)  
☎ (916) 363-2345

**Samurai Sushi**

12251 Folsom Blvd.  
Rancho Cordova, CA 95742

신영후(토마스)

☎ (916) 353-1112  
samuraisushisac.com

**Law Office of  
Daniel S. Lee**

2720 Gateway Oaks Drive  
Suite#140 Sac.CA 95833  
(직장상해법.상해보상.장애사회보상)

변호사 이진아(막달레나)  
danieelaw@gmail.com  
☎ (916) 922-0107

**Bradshaw  
Optometry**

3557 Bradshaw Rd. #2E  
Sacramento, CA 95827

김기상(바오로)  
☎ (916) 361-2020  
Fax (916) 361-0433

**신세계여행사**

148 Grand Ave.  
Oakland, CA 94612  
Raymond(베로니카)

☎ (510) 451-7487  
688-0157

**FARMERS  
배정순 종합보험**

사업/상해/자동차/집/건강  
생명보험/연금

9545 Folsom Blvd # 1  
Sacramento, CA 95827  
☎ (916) 362-3300  
Cell (916) 475-3770

**에어컨 수리**

**Air Conditioner  
Service & Repair**

배용환(율리아노)  
☎ (916) 548-3278  
(916) 362-3300

**메리서부동산·용자**

주택·상가·상업·부동산관리  
7803 Laguna Boulevard  
suite 200, Elk Grove  
CA95758

서주연(마리아)  
☎ (916) 271-3671

**SNOW WHITE DENTAL**

6416 Tupelo Dr. Citrus Heights,  
CA 95621

장원석(바오로)

☎ (916) 729-1441  
한국어(916) 230-6768

영문서류 도와드립니다.

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 
미리 예약을 하시면 주일날  
성당에서 도와드립니다

☎ 전비아 (916)548-7132  
이플로렌시아 (916)276-1834

사회복지부

# ■공동체 소식(가정의 쇄신;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)

1구역(FE).2구역(F0).3구역(PC).4구역(NH).5구역(GF).6구역(RC).7구역(RT).8구역(NC).9구역(EG).10구역(DW)

## <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>

1. 리노공소 미사안내  
일시;18일(일)성당에서 오후2시30분 출발  
참여단체;복지부. 공소미사에 함께 해주세요
2. 첫영성체 및 어린이(유아) 세례식  
일시;18일(일)교중미사중. 축하해주세요.  
수고해주신 장선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
3. 모임안내  
꼬미시움;18일(일)오후1시. 엘리사벳방  
울드레아;20일(화)저녁미사후. 엘리사벳방  
사 목 회;25일(일)오후1시. 엘리사벳방  
연 령 회;25일(일)오후1시. 마테오방
4. 세례대상자 피정  
일시;6월24일(토)오전9시30분-오후1시. 성당
5. 세례식 안내  
일시;6월25일(일)교중미사중.  
주님자녀로 새로이 태어나심을 축하드립니다.  
대부모님과 신자들의 기도바래요(게시판참조)
6. 사제관건축 현황보고  
일시;25일(일)교중미사후. 성당
7.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 
일시;30일(금)오후7시30분. 성당  
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
8. 여성 제11차 꾸르실료(서중부)  
일시;6월22일(목)-25일(일)HolyRedeem Center  
참가자;김연화.이인숙.류정임.김재희.김계숙  
수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.
9.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 
일시;7월1일(토)오전10시30분. 성당  
미사후 안나회.요셉회가 있습니다.  
이날 특전미사는 없사오니 착오없으시기바래요
10. 대건회 친교산행  
일시;25일(일)오전10시 성당출발  
장소;Marshall Gold Discovery States  
Historic Park in Coloma
11. 멕시코 성지순례 안내;9월10일(일)-13일(수)  
참가비;\$1,350 신청;원영일(916-844-9079)

12. 교구 2차헌금(에과도르 선교사업 후원)  
일시;7월2일(일)모든미사  
목적;Collection for the Holy Father(세계선교)  
소개;이선자수녀님(사랑의 씨튼수녀회)
13. 청소년 일일피정  
일시;7월8일(토)오전10시-오후4시. 성당  
강사;Joseph Kim 신부님(산호세교구)  
주제;What's God's Plan for Korean American Catholics?(일정표;게시판 참조)  
문의;이대원.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래요.
14. 본당신부 영명축일(6월29일)  
본당부제(김상돈) 서품기념일(6월28일)  
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위해 기도해주세요.
15. 리빙 트러스트 상속세미나  
일시;6월24일(토)오후5시. 친교실  
강사;박수정변호사.참가비;\$30(식사.레퍼널티켓)
16. 주님!영원한 안식을 주소서.  
최기소.바오로와 양재혁.아브라함의 영원한 안  
식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
17. 감사합니다!  
점심봉사;이번주; 보조;  
다음주;여성부 보조;  
도네이션;송돈희\$100(주일학교)

## <주일/한글학교 소식>

한글학교 교사모집중이오니 관심가져주세요.  
(문의;정미정.루시아)  
여름성경학교(Vacation Bible School)을 위하여  
수고하신 교사들과 자모회에 감사드립니다.  
문의-주일학교;이미경.아네스(530-906-0265)  
한글학교;정미정.루시아(916-704-4176)

- ◎여름옷.신발.어린이수영복 도네이션 바랍니다.  
문의;사회복지부(겨울옷은 사양)
- ◎The One Campaign;없음      합계;\$68,295
- ◎건축기금/목주기도;735단.    합계;434,830단

화답송



예 루 살 렘 아 주 님 을 찬 미 하 여 라

전례봉사	성체성혈축일(6월18일)	연중제12주일(6월25일)	성김대건대축일(7월2일)	연중제14주일(7월9일)
해설	임상일.프란치스코	김은영.폴리나	최금주.요안나	김은선.제노베파
제1독서	박춘자.마리아	이강덕.시몬	김기상.바오로	김기상.바오로
제2독서	안선미.미카엘라	이재정.젼마	김미혜.세레나	김미혜.세레나
복사	송돈희.윤여훈	권오수.최준우	김재열.이상인	김규철.이대원
봉헌/기도/청소	7-8구역	7-8구역	9-10구역	9-10구역
헌금위원	송돈희.임상일	나송희.류정임	장석자.고원석	이나숙.정의주